

TV 2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Table with 5 columns: 채널A, KBS1, KBS2, MBC, KBC/SBS. Rows show program schedules for various channels and times.



한겨울 추위... '부성애'로 녹인다

'인터스텔라' 800만 관객 돌파 '국제시장' 개봉 앞두고 관심 급증

극장가를 뒤덮은 아버지 열풍이 뜨겁다. SF 영화로는 이례적으로 부성애에 방점을 둔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인터스텔라'가 800만 관객을 돌파하며 극장가를 강타한 데 이어 연말 한 국영화 최대 기대작인 윤제균 감독의 '국제시장'도 급변했던 한국사회에서 아버지의 힘겨운 삶을 조명하기 때문이다. '국제시장'은 개봉을 3주 앞두고 있으면서도 예매 점유율 9위에 오를 정도로 관심을 얻고 있다.

영화는 한국전쟁, 파독 광부, 베트남 전쟁, 이산가족 상봉 등 한국 현대사에 발자취를 남긴 굵직한 사건을 따라간다. 주인공 덕수(황정민)는 그러한 역사의 도도한 흐름을 홀로 헤쳐 가며 전쟁으로 폐비박산이 난 집안을 일으킨다.

장남이었던 덕수는 공부 잘하는 남동생의 등록금을 내기 위해, 또 여동생을 시집보내기 위해 목숨까지 걸어야 했다. 산업 역군으로 독일로, 베트남으로 떠났던 그는 삶과 죽음이 종이 한끝 차이인 위험지역을 계속해서 누비며 가족들을 챙긴다. 노년의 덕수는 한국전쟁 때 헤어져 아버지(정진영)를 떠올리며 이같이 읊조린다.

"아버지 내 약속 잘 지켰지, 이만하면 잘 살았지... 근데, 내 진짜 힘들었거든..." 윤제균 감독은 연출의 변에서 "정말 힘들고 가난하고 어려웠던 그 시절에 가족과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다 바친 우리 아버지 세대들에 대해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인터스텔라' 스토리의 핵심 '부성애' 올해 개봉한 외화 가운데 '겨울왕국'에 이어 두 번째로 800만 관객을 돌파한 '인터스텔라'는 SF 영화로 분류할 수 있지만, 이야기의 뿌리는 스필버그식 가족애에 맞닿아 있다.

우주로 나가면 다시 지구로 돌아올 가능성이 희박하지만, 자녀의 삶을 위해 우주로 나갈 수밖에 없는 아버지와 평생토록 그런 아버지를 기다리는 딸의 절절한 감정이 영화의 주요 연료다. 실제로 '인터스텔라'에서 가장 감동적인 장면 중 하나는 발사를 앞둔 우주선에 앉아있는 주인공 쿠파(매튜 맥커너히)의 표정과 아버지를 떠나보내는 딸(아역 맥켄지 포이)의 표정을 교차로 보여주는 시퀀스다.

우주로 나갈 수밖에 없는 쿠파의 사정과 아빠와 헤어지기 싫어하는 딸의 표정이 교차하면서 가족애라는 보편적인 감정을 영화는 두드린다. 특히 영화 말미는 거의 아버지와 딸의 감정 교류로 채워진다. 우주와 지상에서 벌어지는 설명할 수 없는 신비는 대부분 부성애로 수렴해 설명된다.

정지훈 평론가는 "딸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 등 가족코드를 영화 내용에 잘 버무렸다"고 말했다. ◇고성환 아버지를 위한 헌사 '국제시장' 윤제균 감독이 '해운대'(2009) 이후 5년 만에 메가폰을 잡은 '국제시장'은 '인터스텔라'보다 직접적으로 아버지의 삶을 건드린다.

주말극 '가족끼리...' '전설의 마녀' 시청률 상승

KBS 2TV 주말극 '가족끼리 왜 이래'와 MBC TV 주말극 '전설의 마녀'가 나란히 시청률 상승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1일 시청률조사회사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전날 방송된 '가족끼리 왜 이래'는 37%, '전설의 마녀'는 23%를 기록하며 각각 자체 시청률을 경신했다.



가족끼리 왜 이래

지난달 23일 시청률 35%를 넘어서며 또 하나의 '국민드라마' 탄생을 기대하게 하고 있는 '가족끼리 왜 이래'는 김상경-김현주의 코미디 호흡이 물이 오르고, 유동근-김서자 관계에 대한 궁금증이 고조되면서 상승세를 타고 있다. 지난달 16일 시청률 20%를 돌파한 '전설의 마녀'는 교도소에서 만나 정을 나누며 '대안 가족'이 된 네 명의 여자가 이제 출소하면서 새롭게 펼쳐지는 이야기가 관심을 끌고 있다.

한편, 이날 방송된 다른 주말극의 시청률은 MBC '장미빛 인생' 18.6%, SBS '미녀의 탄생' 6.9%, SBS '모던파머' 4%로 나타났다.



연인됐어요~

"연인됐어요~"

이희준·김옥빈 드라마 촬영중 알콩달콩

배우 이희준(35)과 김옥빈(27)이 연인이 됐다. 이희준의 소속사 BH엔터테인먼트는 1일 "이희준과 김옥빈이 드라마를 촬영하면서 좋은 감정으로 발전해 교제한 지 1~2개월 정도 됐다"고 밝혔다. 이어 "드라마를 6개월간 촬영하면서 고생한만큼 두 사람은 휴식 차원에서 현재 동반 유럽 여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희준과 김옥빈은 지난달 막을 내린 JTBC 연속극 '유나의 거리'에서 남녀 주인공으로 호흡을 맞췄다. 이희준은 연극무대에서 활동하다 2012년 '낭랑해 굴러온 당'

EBS

Table with 3 columns showing EBS program schedules for World News Review, EBS 특강, and various news and entertainment programs.

EBS플러스1

Table with 2 columns showing EBS Plus 1 program schedules including 2016 수능열기, 2016 수능개념, and various educational programs.

EBS플러스2

Table with 2 columns showing EBS Plus 2 program schedules including 한국어 능력 시험대비 강좌, 수능특강, and various educational programs.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Table with 2 columns showing daily fortune tellings for different zodiac signs (子, 午, 未, 申, 酉, 戌, 亥) with dates and horoscope details.